



“걱정마세요...진짜 사나이 될게요” 육군 제 31보병사단(소장 권혁신)은 19일 오후 광주시 북구 삼각동 신병교육대대에서 신병 입영식을 개최했다. 입영 장병이 가족들과 이별의 아쉬움을 나누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화합의 상징 ‘화개장터’ 입점싸고 파열음

하동으로 주소 옮긴 호남상인 6명 3년 거주 규정에 탈락

광양시·구례군 항의...자칫 지역갈등으로 번질까 우려

영호남 화합의 상징적인 곳이자 가수 조영남의 노래 제목으로도 잘 알려진 ‘화개장터’에서 최근 파열음이 일기 시작했다. 행정구역상 경남 하동군에 자리한 화개장터 입점자(상인) 재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호남지역 상인들이 반발하면서부터다.

19일 광양시와 하동군에 따르면 하동군은 화개장터 점포 입점자들의 임대기간(3년)이 만료됨에 따라 입점자 공고 등 과정을 거쳐 지난 7일 점포 82칸의 새 입점자를 선정했다. 지난 2014년 11월 27일 화개장터가 불에 탄 뒤 군유지 4300㎡에 복원한 한옥구조의 점포 38칸과 난전을 정비한 점포 44칸이 대상이었다.

화개장터는 본래 관광시설지구였지만 지난 2013년 전통시장으로 등록했다. 당

시 하동군은 미관을 가꾸려고 도로 옆이나 빈터에 파라솔을 치고 장사하는 난전 정비사업을 벌였다. 하동군이 무질서한 난전 55곳을 없애고 점포 44칸을 마련한 것도 이때다.

군열의 첫 조집은 난전을 운영해 온 호남 상인 6명이 난전 정비사업의 대상자로 지목되면서 비롯됐다. 10여년 전부터 이곳에서 나물과 약초 등을 팔던 광양지역 5명과 구례지역 1명 등 호남 상인 6명은 난전 정비사업으로 쫓겨날 뻔했지만 하동군은 당시 초기지분을 얻은 점포를 마련해 이들이 장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에게서 각각 연간 60만원의 임대료도 받았다. 그러자 하동지역 상인들은 “난전을 하는 하동 상인을 쫓아내면서 호남 상인을 왜 내버려 두느냐”며 반발했다고

한다.

이후 하동 상인들의 반발을 의식해선지 상인들은 하동군으로 주소를 옮겼지만, 실제 거주지인 광양과 구례의 집에서 출퇴근했다.

하지만, 이번 입점자 재선정 때는 호남 상인 모두가 탈락했다.

하동군은 ‘하동군에 3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상인’으로 입점자 자격을 제한한 ‘화개장터 운영 규정’을 들었다. 기존에도 있었던 규정이지만 이번엔 엄격히 적용한 것이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광양시·구례군 공무원 등은 지난달 직접 하동군을 찾아가 우려를 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호남 상인 손영진(50·광양시)씨는 “모두가 영세한 상인들로 화개장터를 삶의 터전 삼아 생계를 이어 가는데 하동군이 지역을 가려 탈락시키는 것은 너무나 것 아니냐. 딱 데도 아니고 화개장터에서...”라고 울려했다.

광양시 관계자도 “화개장터는 행정구

역상 하동군에 있지만 역사적으로 영호남 교류와 화합의 상징적 장소”라며 “지난번 불이 났을 때도 공무원들이 성금을 모아 전달하는 등 두 지역의 각별한 의미가 있는 만큼 판단을 다시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막상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호남지역 상인들이 장터에서 배제되자 하동군도 자칫 지역 간 갈등으로 번질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하동군은 ‘화개장터에 전남지역 상인들에게 점포를 줄 수 없으나 광양시와 구례군에 각 1칸씩 배정할 테니 관광안내소나 장사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광양시와 구례군에 보냈다.

하동군 관계자는 “영호남 상인들을 모두 참여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확정된 사안”이라며 “이번 입점자 선정 과정에 하동지역 상인들이 상당수 탈락하자 반발이 심해 호남 상인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무안군 ‘남악신도시 개발 이익금 분배’ 패소

무안군이 ‘전남도청이 들어선 남악신도시 개발이익금을 나눠달라’며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했다.

광주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병철)는 무안군이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사업 이익금 분배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남도가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영개발조례와 별도로 남악신도시개발조례를 제정했고, 여기에는 공영개발조례와 같은 사업 이익금 분배 조항이 없어 분배 지급 의무가 없다는 1심 판결

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남도가 개발이익금 분배 협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에 불응해 손해를 끼쳤다는 무안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안군은 지난 2013년 7월 남악신도시 개발 이익금 40%를 배분하도록 명시한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등을 근거로 전남도 등에 이익금 150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박정욱기자 jwpark@

내년부터 자전거 등록제

내년부터 자전거를 등록하는 제도가 전국적으로 도입돼 도난사건이 줄어들고 잃어버린 자전거를 찾기도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전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9

해질녘 17:48

달출몰 14:30

달지름 03:43

강추위

구름이 많고 일부지역에 눈과 비가 오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구름많음	-6/1	보성	구름많음	-5/0
목포	눈오다غم	-4/1	순천	구름많음	-5/1
여수	구름많음	-5/1	영광	눈오다غم	-6/1
나주	눈오다غم	-6/2	진도	눈오다غم	-3/1
완도	구름많음	-4/1	전주	구름많음	-9/0
구례	구름많음	-7/-1	군산	구름많음	-9/-1
강진	구름많음	-5/1	남원	구름많음	-10/-1
해남	구름많음	-5/1	축산도	눈오다غم	-2/1
장성	눈오다غم	-6/1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앞바다 북서~북 1.5~3.0	북서~북 1.0~2.0
남부	면바다 북서~북 2.0~4.0	북서~북 1.5~3.0
남해	앞바다 북서~북 1.5~2.5	북서~북 1.0~1.5
서부	면바다(동) 북서~북 2.0~4.0	북서~북 1.5~2.5
서부	면바다(서) 북서~북 2.0~4.0	북서~북 1.5~3.0

◇생활지수

체감온도	관심
동파	낮음
뇌졸중	높음

◇물때

목포	밀물	썰물
	11:09	03:43
	23:17	16:42
여수	06:25	12:34
	18:39	00:00

◇주간 날씨

21(목)	22(금)	23(토)	24(일)	25(월)	26(화)	27(수)
☀	☀	☁	☀	☁	☀	☀
-5/2	-5/3	-4/1	-8/-3	-7/-1	-5/3	-3/5

이혼에 상처받은 童心 어른들 同心으로 치유

광주가정법원 면접센터 ‘동심’ 개소...치유 프로그램 운영

#. 평소 아내와 자녀에게 다정했던 A씨는 술을 마시면 폭언과 거친 행동을 했다. 아내와 자녀는 이런 A씨의 행동에 불안에 떨었고 결국 A씨 부부는 별거에 들어갔다. 그리고 지난해 4월 아내는 광주가정법원에 이혼 청구를 했다. A씨는 이혼이 아닌 관계 회복을 원했지만, 아내와 자녀들의 뜻은 완강했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와 보호관찰 처분을 내려졌다.

법원은 평소 자녀와 다정했던 것을 감안해 A씨와 자녀 간 면접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원의 면접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한 달 간 법원의 도움을 받아 A씨와 자녀 간 대화의 시간이 마련됐고 자녀들도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A씨와 아내는 지난 6일 이혼했지만 가족 간 신뢰가 일정 부분 회복되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가정법원이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를 입은 자녀의 동심(童心)을, 부모와 법원이 한마음(同心)으로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 비록 이혼했지만 부모로서 함께 자녀의 이름을 보듬을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이다.

광주가정법원(법원장 김재영)은 이혼 가정의 부모와 자녀가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면접교섭센터 ‘동심’을 가정법원 1층에 마련해 20일 문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서울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 ‘이음누리’에 이어 전국 두번째다.

‘동심’은 이혼 등으로 따로 사는 부모가 법원이라는 안전한 장소에서 자녀를 만날 수 있게 지원하는 시설이다. 양육권이 없는 한 쪽 부모가 자녀를 만나는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예전 배우자와의 불필요한 다툼을 차단하고, 자녀의 정신적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한 중립지대로서의 역할도 한다.

아울러 이혼 전·후 부모와 자녀간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될 부모교육과 상담프로그램(아동상담)도 제공한다.

특히, 이 곳의 실내장식은 정화남 광주교대 미술교육학과 교수(대담미술관장)의 재능기부로 꾸며졌다.

광주가정법원은 앞서 교섭센터 정착을 위해 조선대, 호남대, 마음순리상담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 상담전문가 31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2016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 대학원 신·편입생 추가모집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학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학과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사범	유아교육과	○
예능	음악학과	○
	실용음악학과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장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6. 2. 18(목) ~ 22(월)

• 전 형 일 : 2016. 2. 23(화) 오전 10시

편입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정원내	정원외
인문	신학과	5	1
	국제한국어교원학과	1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3	1
사범	유아교육과	4	
예능	음악학과	7	
	실용음악학과	4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6. 1. 11(월) ~ 1. 25(월)

• 전 형 일 : 2016. 1. 28(목) 오전 10시

입학문의 ▶ 학부 062)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막지사로 36

대학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6. 2. 1(월) ~ 16(화)

• 전 형 일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전형일시
일반대학원	박사	신학과(Ph.D.)	○	2016. 2. 19(금) 오전 10시
		목회학과(D.Min.)	○	
		신학과(Th.M.)	○	
신학대학원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	2016. 2. 19(금)오후 3시
		신학과(M.Div.)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통합예술치료학과(M.A.)	○	2016. 2. 19(금)오전 10시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평생교육학과(M.Ed.)	○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원학과(M.A.)	○○	2016. 2. 19(금) 오후 3시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	
		실용음악학과(M.A.)	○	

신학대학원 편입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명(주·야)	2학기 이상 수료
3학년	○명(주·야)	4학기 이상 수료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6. 2. 1(월) ~ 16(화)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전 형 일 : 2016. 2. 19(금) 오전 10시